

비대면 금융 확대... 은행원 시각변동 예고

“현재 금융거래의 95%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져... 불필요한 인력 감축은 언제든 계속될 듯”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은행원들의 실직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지점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계기로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돈 안 되는 점포를 통폐합하거나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감축 등 감량경영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케이뱅크에 이어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는 6월 출범할 경우 은행 간 비대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몸집줄이기 행보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신한·우리·기업·국민·농협·KB하나·SC

제일·씨티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의 임직원 수는 9만6729명으로 전년 동월(9만8937명) 대비 2208명(2.2%) 줄었다.

국민은행의 임직원 수가 1만9941명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고 우리(1만4988명), 신한(1만4146명), 하나(1만3887명), 농협(1만3847명), 기업(1만2211명), SC(4152명), 씨티(3557명) 등의 순이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2년 간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없애고 통폐합하는 등 영업점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8개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6039개로 1년 전(6211개)에 비해 172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권의 인력 감축의 키워드는 희망퇴직이다. 고질적인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다.

당장 올해 초부터 국민은행에서 2795명의 희망퇴직이 있었고, 신한은행에서도 280여명의 직원들이 짐을 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310명이 신청했고, 이들은 다음달 중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직원들과 영업점을 줄이는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의 발달 덕분이다.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면서 비대

면 고객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은행 조직내 성과주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실적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민간은행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현실화되면 실적 쫓세우기에 따른 저성과자 퇴출 움직임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융거래의 95%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은행업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 불필요한 인력 감축은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계기로 성과만능주의와 비대면채널 강화 경쟁이 격화될 수록 은행원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별정우체국중앙회 전북도회, 김종관 도회장 취임

별정우체국중앙회 전북도회 제15대 김종관 도회장 및 임원 취임식이 12일 전북우정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병수 전북우정청장, 윤민수 별정우체국 중앙회장, 정동영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내·외빈이 참석했다.

별정우체국은 산업화, 정보화, 노령화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전국 농산·어촌 면단위 지역에 국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사재로 우체국을 건축한 후, 운영하는 우체국으로 1961년부터 시

행돼 현재 전북도에 98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15대 전북 도회장으로 취임한 김종관 도회장은 취임사에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별정우체국 종사원 및 지역 주민, 정치권, 우정사업본부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회 제 15대 임원은 김종관 도회장(순창 동계우체국장), 송재선 부회장(완주 이서우체국장), 손금석 감사(남원 대강우체국장), 김정호 감사(익산 망성우체국 직원)이다.

/안재용 기자

인삼 뿌리썩음병 억제하는 녹비작물 규명

농진청, 수단그라스·아주까리·똥판지 등 3종

인삼 연작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뿌리썩음병 억제에 수단그라스, 아주까리, 똥판지(돼지감자)를 녹비작물로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은 4년~6년간 재배하기 때문에 이어짓기에 의한 연작장애 발생이 심하며, 뿌리썩음병은 연작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농촌진흥청 인삼과에서는 6년간 인삼을 수확한 후 뿌리썩음병 발생이 많은 연작장애 발생 토양에 23종의 녹비작물을 1년간 재배해

땅을 관리한 다음 다시 인삼을 심어 뿌리썩음병 발생 정도를 조사했다.

이중 수단그라스 재배 시에 뿌리썩음병 발생률이 가장 낮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아주까리와 똥판지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그라스는 가장 널리 쓰이는 화분과 작물로 여름철에 잘 자라 녹비 생산량이 많으며, 식물체의 질소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 인삼의 염류장해를 줄이는 효과가

높다. 토양에 염류농도가 높아지면 인삼뿌리에 상처가 생겨 병원균이 쉽게 침투한다.

아주까리와 똥판지도 재배하기 쉽고 녹비 생산량도 비교적 많은 장점이 있다.

기존에 선별된 녹비작물인 해바라기는 녹비 생산량이 많아 여름철에 식물체를 토양에 넣어주고 비닐로 덮어주면 지온이 상승해 태양열 소독에 적합하다.

열무, 쑥갓, 상추, 치커리 등과 같은 채소류와 작약, 네마장황, 이탈리아리아그라스 등은 식물체의 질소함량이 많은 대신 섬유질이 적어 토양개량 효과도 떨어지고 인

삼의 뿌리썩음병 억제에도 효과가 없었다.

녹비작물은 가을에 인삼을 수확한 밭에 이듬해 4월~5월에 재배한 다음 생육이 가장 왕성한 개화기에 트랙터로 갈아 땅에 넣어주면 된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이성우 농업연구관은 “인삼 예정지를 관리할 때 재배하기 쉬우면서 녹비 생산량도 많고, 인삼 뿌리썩음병도 억제할 수 있는 녹비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섬유질이 적고 질소가 많은 작물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LH 익산사업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 환경정화

LH 전북본부 익산사업단은 12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 마을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시공업체 등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익산사업단은 이날 익산왕궁면사무소에 청소도구 등을 지원하고, 익산사업단 소속 5개 협력업체 직원 50여명과 함께 공동으로 트럭 등 일체의 청

소장비를 동원해 사업지구 인근 마을 길 10여km와 하천 2km 구간에 대한 대대적 환경정화 운동을 펼쳐 겨우내 적체돼 있던 쓰레기와 도로 흙먼지 제거 등 환경정화 운동을 펼쳤다.

익산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지구 인근마을 청소는 물론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5월중에는 동면천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천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쌀 한톨에 키 한 Tall’ 캠페인 실시

전북농협과 (사)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12일 전주 아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쌀 한톨에 키 한 Tall’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협 전 법인과 (사)고향주부모임이 실시하는 이 캠페인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14일까지 진행되며, 쌀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쌀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우리 쌀과 한우불고기 요리를 만든 ‘침여우 한우불고기 삼각 김밥’

1,600개를 나눠주며,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바른 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또한, 쌀로 만든 간식과 쌀 관련 교육·자격증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는 거리캠페인도 실시해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강태호 본부장은 “쌀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아침밥과 우리 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중진공, 도내 중소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군산에서 도내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수출 및 금융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진공 전북서부 글로벌벤처스쿨립 회원사 10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수출기업으로의 전환과 수출 물량 증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간 연계지원과 정책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마련됐

다. 전북서부 글로벌벤처스쿨립은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2015년에 출범한 모임이다.

한국의 마른김을 태국에 수출하는 에스시디디(주)를 비롯해 현재 40개 내외의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으며, 이 모임은 수출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수출 이행 계획 등을 보유한 업체면 가입이 가능하다. /안재용 기자

전개공 한마음봉사단, 무료 배식 봉사활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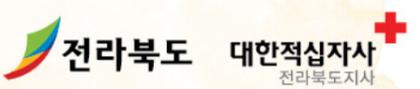
전북개발공사 한마음봉사단은 12일 전북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익산에서 무료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새봄을 맞이해 전북개발공사 한마음봉사단이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밥 한끼를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익산 송학지안리조트 광장에서 시행했고, 장애우 및 어르신, 입주민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 떡, 과일 등을 대접하며,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6일에도 익산을 찾아 유관기관과 연계해 생활법률 상담, 보이스피싱예방 및 금융상담, 구강검진 등 전문가 상담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재찬 사장은 “앞으로 공사는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0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용